

고흥군, 결식우려 아동 사각지대 없앤다

18세 미만 발굴 1일 1식 8천원 상당 도시락·부식 배달 지원 저소득층 아동 및 경제적 어려움 처한 가구 조사후 지원 예정



고흥군은 복지사각지대의 결식우려 아동을 중점 발굴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약 및 미취학 아동을 발굴해 1일 1식 8천원 상당의 도시락 또는 부식 등을 배달 지원하는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저소득층 아동 및 보호자의 사고, 가출, 질환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포함하여 조사 후 지원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온라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 본인뿐 아니라 가족, 이웃주민, 사회복지사, 마을이장 등 주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전수조사 기간 외에도 어려운 환경속의 결식우려 아동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아동급식사업은 급식업체(고흥시니어클럽)에서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급식 메뉴를 정하고, 식품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리하여 당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든든하고 따뜻한 한끼'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아동복지 정책을 수행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적극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양시, 인근 시·군 박람회 특수 관광객 노린다

광양시가 다각적이고 매력적인 관광이벤트와 관광수용태세 강화로 인근 도시의 박람회 특수 관광객 견인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개최 예정인 순천만국제정월박람회(4~10월), 하동세계차엑스포(5.4~6.3.) 등 인근 시·군의 대형박람회를 찾는 방문객을 흡수해 광양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관광진흥 홍보, 관광객 맞이, 음식·숙박·교통, 유관기관 협력 등 크게 4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종 이벤트, 인센티브 등 구체적

인 시책을 수립하고 버스킹, 토요장터, 도시경관 개선 등 풍성한 문화행사와 꼼꼼한 관광수용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광양불고기, 광양닭살불구이 등 대표 음식 특화 및 맛집 발굴, 농·특산품 판매장 운영과 할인, 음식·숙박 할인, 교통 대책 등 손에 잡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전 부서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연계 관광시책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연중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광양=김현근기자

순천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모집

24일까지 350명 모집

순천시는 ICT 기반 공공형 건강관리서비스인 '2023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스마트기기와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기관 전문가(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모집대상은 혈압·공복혈당·허리둘레·중성지방·HDL콜레스테롤 중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만 19세 이상 순천시민 또는 순천시 소재 직장인이다. 해당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자는 제외된다.

모집인원은 총 350명으로 오는 24일까지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061-749-4260) 또는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061-749-3640)에 전화로 접수하며, 모집인원이 초과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 중 건강검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참여자에게는 블루투스 연동 장치를 무료 제공하고 24주 동안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순천=김승호기자

보성군, 올해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정책 펼친다

보성군이 올해도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365'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7일 보성군에 따르면 '다시 뛰는 보성 365'의 슬로건을 기치로 5대 핵심 목표인 생애 주기별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영아기 두터운 돌봄 지원을 위해 만 0세부터 만 1세 아동에게 기존 지급되던 영아수당(월 30만 원) 대신 부모급여(월 35만 ~70만 원)를 확대 지급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을 기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동 돌봄 체계에도 변화를 준다.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드립스타트 사업은 코로나19 완화와 함께 다양한 대면 프로그램을 재개한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은 아동 적립금 5만 원 내에서 월 10만 원 내로 매칭 지원한다. 자립 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5년간 지급하는 자립 수당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경력이음바우처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창업교육과 일자리 상담을 통해 연간 8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주어진다.

여성 청소년을 위해서는 여성생리용품 지원사업에 연간 8080만 원을 투입, 상품권과 바우처를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 92개 마을에 찾아가는 경로당 무료 급식 사업과 사랑의 밤차를 3~12월까지 운영해 어르신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한다.

재활·신체활동 등 주간보호센터의 맞춤형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어르신 사회참여 활동 기회와 소득 증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기존 2305명에서 2473명으로 늘렸다. '우리동네 홀로 계신 어르신 우리가 돌본다' 사업도 추진한다. 홀로

계신 어르신 450여 명을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141명의 장애인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득 활동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는다. 장애인 연금은 지난해 대비 5%, 장애수당은 2만 원 인상했다.

지난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을 연 36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사기 진작을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을 신설, 연 36만 원을 지급한다.

보성=김덕순기자



정기명 여수시장, 사회복지시설 난방실태 '긴급 점검'

경로당·지역아동센터 방문

정기명 여수시장은 6일 사회복지시설 난방실태 긴급점검으로 주말에 이어 연이은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정 시장은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난방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틀러 동행한 직원에게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난방비 지원사업을 대상자가 누락 없이 적시에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먼저 안산동 장성마을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으며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 등에 대해 안내하고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솔샘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난방실태 등 운영상황을 살피고 종사자와 시설이용학생들을 격려했다.

정 시장은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난방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의 복지 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써 시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